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내용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찰*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수업을 중심으로-

이 윤 진

Abstract

Lee Yunjin. 2016. 12. 31. **A study o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odel 1> in Practicum class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Based on the Korean education major course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65, 183-22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odel 1> in practicum class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acticum class for Korean is essential in increasing teaching competences and securing practical experience in the field, which has been leading to a continuous discussion of the use of effective teaching measures. Nonetheless, the problems and issues a lecturer may face in designing and running the practicum class have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formed based on this observation, calling for a specialized curriculum in each degree course. This article thus reviews the management of practicum classes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general and suggests improvement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KFL practicum class research is dealt with first in the second section. The third section first investigates the need to define and standardize the use of major terms in the discussion of <Model 1> of KFL practicum class, and then details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The fourth section clarifies three concepts that constitute <Model 1> in KFL practicum class; classroom observation, simulated instruction and actual teaching practice and how they are closely related.

* 이 논문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KLACES) 주최의 23차 추계전국학술대회(2016.10.15.)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 논문의 의의에 공감해 주시고 논문의 수정 방향을 예리하게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In the process, it was found that certain issues may arise due to the fact that course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re held at night, and that the students' demands as well as varied situations they are facing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ly, the management of the practicum class should be managed flexibly, from setting the timeline, liaising with organizations to defining the roles of all participants,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criteria. Practicum classes for KFL is reliable only when it is tightly coupled with the education field, and its successful management cannot solely rely on the competences of the lecturer. This article urges further investigation of concrete and realistic issues in KFL practicum classes, with a focus on the issues Korean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face. (**Anyang University**)

【Key words】 practicum class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한국어교육실습), classroom observation(강의 참관), simulated instruction(모의 수업), teaching practice(강의 실습), course management(교과목 운영), graduate school of education(교육대학원)

1. 서론

한국어교육실습¹⁾은 예비 한국어교원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통해 한국어 교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는 교과목이다(김유미, 2009; 진정란, 2014; 기준성, 2015; 김지혜, 2015). 그럼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실습이 다른 언어권의 자국어교원 양성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진정란, 2014:225)와 더불어 한국어교육실습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세부 지침 마련의 절실함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교육실습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실습이 보다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 마련의 필요성(김정숙, 2015)을 방증하는 한 예로,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지침(안) 공청회(2015년 12월)의 개최를 들 수 있

1) 이하 띄어쓰기 없이 쓴 '한국어교육실습'은 교과목명을 가리킨다.

다.2) 이 외에도 한국어교육실습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 중 5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실습이 다른 영역과의 차별성을 지닌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한국어교육실습이 교육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중한 문제제기는 불충분했다.

이 글은 한국어교육실습의 담당 교수자가 수업 설계와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와 쟁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테면 한국어교육실습은 담당 교수자의 재량이나 역량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교과목이다. 소속된 기관의 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실습 기관이 연계되어야 하고, 한국어교육 기관의 행정 및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강의 참관이나 강의 실습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의실 이외에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이 진행되는 물리적 공간 및 시간,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대한 세밀한 고려, 한국어교육실습에 관여되는 모든 참여자의 역할과 협업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지침이 없으면 한국어교육실습의 유의미한 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이 현장의 특성과 긴밀하게 관련성이 있는 만큼 그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며(진정란, 2014:210-211) 학위과정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한다(김유미, 2009)는 앞선 논의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 전공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실습의 교수요목을

2) 이 글은 투고 시점까지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본 논문의 투고 시점(2016. 10.30) 이후의 공청회(“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실태조사 발표 및 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 지침안 마련”, 2016.11.4) 내용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고찰한 논의(김유미, 2009)나 사이버 대학의 학부 전공생(진정란, 2014; 기준성, 2015; 김지혜, 2015)을 대상으로 한 그간의 성과에 비해 교육대학원 전공 수업에 관심을 둔 논의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실습의 내용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안에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유형(<표 1>) 중 학위 과정의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에서의 상황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1>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³⁾

학위 과정	일반 대학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이버 대학 - 학부, 특수대학원
	학점은행제
비학위 과정	오프라인 양성과정
	온라인 양성과정

본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 글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가치와 중요성, 연구의 필요성을 밝힌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논의에 있어서 주요 용어 사용의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을 이루는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개념 정립과 각 단계별 긴밀성과 더불어 한 학기의 수업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의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포괄하여 기술한다. 이를 종합하면서 5장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에 대한 제언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3) 한상미(2015:27)의 토론문 중 일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2. 논의의 배경

특정 분야나 교과목을 막론하고 교육 실습에 대한 논의⁴⁾는 예비교원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다. 교육 실습 내실화(박영만, 2002; 왕한신 외, 2004; 손은령·박수정·이주옥, 2016)를 비롯하여 모의 수업(강숙희, 2012; 장승희, 2012), 수업 실연(이상하·조보경·진경애, 2014), 수업 시연(김원정, 2010; 배성아·안정희, 2014), 교육 실습(강경희·이선경, 2004), 수업 실습(강창숙, 2014) 등을 핵심어로 한 논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실습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2005년에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어교육실습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일선 예비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해 왔고 학계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시도가 늘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 예비 한국어교원에게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언급한 부분을 빌려오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지식을 현장에서 교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든 필수 교과목 (김유미, 2009:356)
- 한국어교원이 되려고 하는 전공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기타 영역을 통해 학습한 언어와 문화에 관한 이론 지식을 토대로 현장의

4) 예비 과학교사의 교육실습(강경희·이선경, 2004), 예비 체육 교사의 수업 시연(김원정, 2010), 자기 평가서를 활용한 초등 예비교사의 영어수업능력 향상 방안(김영민, 2013), 영어과 수업실연 평가의 수준설정 방안(이상하·조보경·진경애, 2014),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박성덕·김은정·김경철, 2015), 유아교육 실습지도를 위한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 간 e-멘토링에 대한 인식(고영미·하재욱, 2009) 등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체육, 영어, 유아 교육 등 모든 교과목을 아울러 교육 실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수업 컨설팅(심미자, 2012; 송현정, 2015)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과 그것의 운영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쌓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진정란, 2014:208)

- 한국어 교육 현장을 분명하게 이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적성을 확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김지혜, 2015:47)
-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영역⁵⁾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인 교과목 (기준성, 2015:2)
- 한국어교육 현장에 맞닿아 있는 실제라는 측면에서 예비 교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의 교과목 (김정숙, 2015:1)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실습은 한국어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한국어교사, 외국인 학습자와 대면하고 교실 상황을 확인하면서 한국어 교육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입장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살아있는 한국어 수업을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실습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한 기간이 짧은(기준성, 2015:2) 데다가 교육 실습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 역시 미진한 상황(진정란, 2014:208)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의 수업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와 쟁점을 정리해 봄으로써 본 논문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 학기 동안 한국어교육실습이라는 교과목의 사전 단계에서 사후 단계까지 절차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김유미(2009) 이외에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을 포괄적으로 다룬 성과는 미미한 편이며 교육대학원의 상황을 고려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주요 구성 내용인 수업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개념에서부터 각각이 실행되는 과정과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대학원의 한 학기(15주)라는

5)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의 다섯 영역이다.

수업을 기준으로 볼 때 운영 상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표 2> 한국어교육실습 관련 대표 성과의 주요 쟁점

	내용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김유미(2009)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교수요목과 교육방안	○	○	○
장미라(2010)	학습지도안 구성 분석		○	
진정란(2014)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사례 분석	○	○	
기준성(2015)	모의수업과 강의 실습 수행 후의 인식 조사		○	○
김지혜(2015)	모의수업 연구		○	

둘째, 한국어교육 기관 연계와 충분한 실습 시간 확보의 절실함에 비해 실습 진행 절차의 공식성, 합리적인 수준의 참관비 및 실습비 지급 명시화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한국어교육실습이 실습이 아닌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실습 비중이 적게 다루어지고(김유미, 2009:356) 실습생 수용이 가능한 실습 교육 현장 확보가 어렵다(송향근, 2012)고 지적되어 온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어교육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교육실습을 지원함으로써 생기는 ‘업무 부담 증가, 학습자의 수업권 침해, 교사의 심리적 부담 등’(송향근, 2012:64)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어교육 기관의 수요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협조 요청⁶⁾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습 진행에 대한 정당한 요청을 위해서는 공식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해진 서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것부터 실습 절차를 공식화하고, 실습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부터 개선되어야 한

6) 최은규(2011:155-156)에서도 송향근(2012)의 논의에 기대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인식 전환, 관련 학계의 협조와 지원 방안 연구, 정부 담당 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았다.

다. 실습비 지급과 집행에 대한 표준안(진정란, 2014:226)이나 권장 지침이 마련되면 실습기관의 연계 및 확보의 측면에서 현 시점보다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⁷⁾

셋째,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특성 상 수업은 강의실에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한국어교육실습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실습의 교수자가 강의실 이외의 공간에서도 언제 어떤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수강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실제 수행에 이르는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후 관리와 평가의 역할까지를 아울러 맡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실습을 위한 사전 준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과정, 평가 등에 있어서 소속된 교육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교수자의 역할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정리될수록 한국어교육실습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실습에 있어서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 사항과 실행 계획들은 결국 교수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나 책임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주차별 운영과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넷째, 한국어교육실습에 대해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 가운데 학위과정

7)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 기관이라면 교내 부서 간의 협조를 구하고 의뢰를 받는 절차가 어느 정도 매끄럽게 진행되므로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반면 소속 기관 내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참관 기관을 연계하는 과정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수강자가 단일 기관이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실습을 원한다 할지라도 소속된 대학(원)의 교내 연계 기관 이외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실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별로 차별화된 교수요목이 부재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대학원은 한국어교육실습이 2~3학점으로 개설되어 이수하는 단일 교과목이라는 특성 상, 김유미(2009)의 제안처럼 전공 학부생을 위한 학년별, 학기별 단계별 실습 운영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동일 학기에 ‘강의 참관’, ‘모의 수업’에 이어 ‘강의 실습’까지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의 재학생은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는 실습 일정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들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한국어교육실습이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물리적인 시간 제약의 문제를 혼합학습(Blended Learning)⁸⁾으로 보완하고,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강의 참관이 정해진 일정에 불가능한 수강생의 경우는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지침이나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확인하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다.

8)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에 대해서는 진정란(2011)을 참조할 수 있다. 진정란(2011)에서는 면대면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원격 기반의 교육 방식에서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시도였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였다.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인 교육대학원 수업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더 폭넓게 교육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혼합 학습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모형1>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모형1>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세 가지 모형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강의 참관	강의 참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모의 수업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그림 1> 대학(원) 과정의 한국어교육실습 모형(국립국어원, 2015:5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 포함인 강의 참관 외에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이 모두 반영된다는 점이 <모형2>, <모형3>과의 차이점이다.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은 위의 세 가지 모형 중에서 교원양성 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모형1>을 적용한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심을 두는 만큼 <모형1>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의 특징 및 차별점에 대한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주요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도 긴밀한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실습’이라는 용어를 광의와 협의의 의미로 혼용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광의의 실습을 의미할 경우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또는 ‘한국어교육실습’으로 띄어쓰기 없이 쓰고 교과목의 하위 범주가 되는 협의의 실습을 가리킬 때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운영 지침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여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외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⁹⁾ 이 글이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을 이루는 각각의 내용 구성과 운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유사한 개념을 갖는 복수의 용어 사용을 지양하여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글은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을 기준으로 삼아 수업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이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어 가는 상이한 과정”으로서 차별화된다는 한상미(2015:30)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함을 밝혀 둔다.

3.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고는 2학점(주 2시간) 이수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A교육대학원의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경험적으로 고찰한 연구(Case Study)이다. 이에 일회성의 설문조사나 인터뷰,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과정 중심의 관찰, 자료 수집, 질적 분석 등을 연구 방법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6년도 1학기의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운영 사례¹⁰⁾를 기초 자료로 삼아 주요 쟁점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시기는

9) 실습 관련 앞선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한국어교육 분야 이외의 교과에서 ‘수업실습’(강창숙, 2014), ‘수업시연’(배성아·안정희, 2014), ‘수업실연’(이상하 외, 2011) 등으로 불리거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모의 교수’, ‘시범 수업’, ‘시범 강의’ 등의 용어로 불린 예(김유미, 2009)가 있고 모의 수업과 수업 실습을 아울러 언급할 때는 ‘수업 진행’(진정란, 2014:213), ‘실습 및 모의 수업’(김재욱, 2015:14)으로 불리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모형1>을 이루는 하위 범주들을 가리킬 때 일관된 용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본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보았다.

10) 해당 학기의 교과목 수강생은 10인 이하의 소인수 그룹으로, 20대~50대 사이의 교육기관 조교, 주부, 기간제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예비 한국어교원 집단이었다.

2016년 2월~8월까지이다. 자료 수집의 주된 대상과 방법 순으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 대상의 자료 수집
 - 한 학기에 걸친 과정 중심의 관찰, 교수자(연구자)와의 수시 면담 등을 통한 수강생 피드백 수렴
 -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이 제출한 수시 과제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한 한국어교육실습의 애로점, 개선점 도출
 - 학기말에 수강생이 최종 평가 과제로 제출한 한국어교육실습 최종 포트폴리오 분석
- ② 한국어교육실습의 관련 실무자(참관 기관 담당자, 한국어 교사) 대상의 자료 수집
 - 교수자(연구자)와의 비공식 유선/대면 인터뷰 진행을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
 -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이 한국어교육 현장의 강의 참관 시 유의사항 문의, 참관 협조 시 기관 관계자/교사의 애로점과 제안점 등 조사
- ③ 타 기관의 한국어교육 전문가(한국어강사, 한국어교육전공 교수) 대상의 자료 수집
 - 교수자(연구자)와의 비공식 대면 인터뷰 진행을 통한 의견 파악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실제 사례 기반의 문제점 및 제안점 등 조사
- ④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연구자)의 자료 수집
 - 주차별 운영에 따른 수시 관찰 기록 및 점검표
 - 교과목 운영 이전에 수립한 주차별 계획을 토대로 원활하게 운영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 그 이유 등을 분석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의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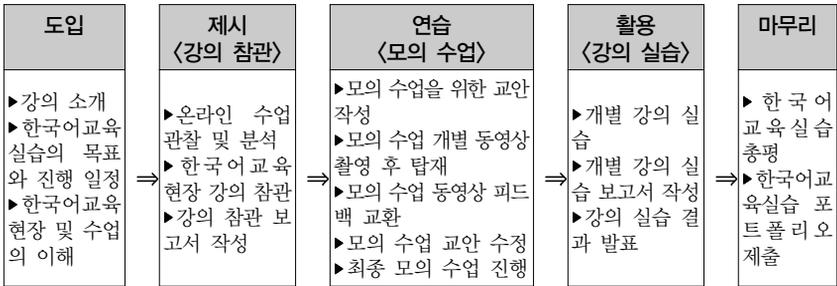
참여자(수강생, 교수자)는 물론 관련 실무자(참관 기관 담당자, 한국어 교사), 타 기관의 전문가(한국어강사, 한국어교육전공 교수) 등의 의견과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강생 피드백은 교수자(연구자)와의 수시 면담, 실습 보고서의 총평을 기초 자료로 검토하였고,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관여자 및 타 기관의 전문가(10여 명)의 의견은 비공식적인 수시 인터뷰 방법을 통해 수렴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에서 수강생에게 수시로 부여된 과제와 최종 포트폴리오 등의 분석을 병행하면서 교과목 운영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간접적인 척도로도 활용하였다. 다만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본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적재적소에 발췌 인용한 것 이외에 전반적인 논의 기술은 귀납적으로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두었음을 밝힌다.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구현에 있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향후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4.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내용 구성과 운영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주요 내용 구성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¹¹⁾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모형1>을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의 흐름을 볼 때 강의 참관이 한국어 수업 노출 및 한국어 수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제시’ 단계라면 모의 수업은 실전을 대비한 가상의 수업을 경험해 보는 ‘연습’이며 강의 실습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강의를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활용’ 단계가 된다.

11) 본 장에서는 편의상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각각의 내용을 차례로 기술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선행과 후행 단계가 자연스럽게 중첩되고 심화되어 간다고 보는 입장이자.



<그림 2>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운영 단계

한국어교육실습 <모형 1> 운영의 큰 흐름 가운데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의 주차별 세부 운영에의 적용을 고려하면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단계를 중점적으로 논한다.

4.1. 강의 참관

강의 참관은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강의 참관은 예비 한국어교사가 한국어 수업 현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 기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대해 그간 품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더욱 구체화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표 3>의 좌측은 기존의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지침 가운데 대학(원) 과정에서, 우측은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 지침(안) 공청회(2015.12) 운영지침(안)에서 강의 참관에 관한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표 3> 강의 참관 운영 지침과 운영(안)

강의 참관 운영 지침(2015)	강의 참관 운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함. - 가급적 초·중·고급의 수업을 고루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의 참관자가 반드시 참관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 -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 참관 지침을 안내하고 참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참관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들이 한국어교육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직접 참석하여 참관하는 것. ▪ 최소 강의 참관 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전체 강의 시간의 5분의 1 이상 (학위 과정에서 3학점(주 3시간) 15주 수업을 운영할 경우, 최소 9시간 이상 강의 참관) ▪ 참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 장소, 참관 일자, 참관 내용, 참관 지도 교수(교사명 포함)

<표 3>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강의 참관의 양과 질, 세부적인 운영 내용과 방법이 해당 교과목 교수자의 재량과 역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점, 한국어교육 기관 연계와 적극적인 협조 요청의 가능성에 따라 강의 참관의 운영 양상이 상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참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 ‘강의 참관을 위한 한국어 수업의 이해’, ‘참관 기관 조사 및 참관 규칙 인식’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참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

강의 참관은 한국어교육실습의 필수 단계로 한국어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와 원활한 협조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강의 참관의 성과는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일정 조율과 협조가 원활히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의 참관 절차의 공식화 및 참관비의 현실화

강의 참관은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에서 먼저 한국어교육 기관에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성사되고 현실적인 참관비를 책정함으로써 한국어교육 기관의 상황,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교수자, 수강생의 요구가 종합적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실습비 지급 여부는 강의 참관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 및 담당자의 호의적인 협조와 지원의 폭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선의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교육실습에 대해 느끼는 점¹²⁾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어 수업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되는데 참관생까지 오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뿐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수업 강사나 담당자 모두가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B기관의 한국어 교사)

“사전 공지 없이 참관생이 한국어수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마땅히 거부나 희망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교사에게 별도의 참관비가 지급되면 좋겠다.” (C기관의 한국어 교사)

“애초에 수업 참관비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당 참관비를 모두 한국어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참관생을 꺼리는 교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한국어 수업에만 참관생이 배정되지 않을 때 다소의 서운함을 표하는 교사도 있다.” (D기관의 한국어 교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의 참관 절차의 공식화와 강의 참관비 현실화는

12) 3장의 연구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교육실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의 일부이다.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향후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한국어교육 기관의 강의 참관 담당자와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의 구체적인 협의

강의 참관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한국어교육 기관의 강의 참관 담당자와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한국어교육 기관(강의 참관 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진행 요청 및 참관 일정 조율 (기관 개요, 기관의 한국어 교사상,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배경, 참관 시 주의사항 등)
- 한국어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사와 한국어학습자의 교수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고 사전 협조 요청 (사전 동의서 및 일정 공지 등)
- 실제로 참관하게 될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정보 제공 (수업 교재 및 학습자 수준, 수업 진도 및 자료 제공 여부 등)
- 강의 참관 후 해당 수업을 진행한 한국어 교사가 참관생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양식 및 항목
- 수강생의 강의 참관 출석 관리 및 강의 참관 확인서 발급
- 강의 참관 후 담당 한국어 수업 강사와 만남의 기회 마련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 한국어 교육 현장 Q&A)
- 추후 해당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강의 실습' 진행에 대한 수요 및 가능성 논의

위와 같이 한국어교육 기관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으로 하여금 참관 기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강의 참관

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강의 참관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아무런 사전 준비나 정보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고 형식적인 참관보고서 작성으로 그치는 강의 참관과는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강의 참관을 위한 한국어 수업의 이해

강의 참관 일지 작성에 대한 의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교육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강의 참관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고 참관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¹³⁾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교육 현장 알기와 강의 참관의 목적 인식

한국어교육 현장의 한국어교사가 참관생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참관생의 태도가 언급되곤 한다. 참관생이 배우려는 자세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사를 평가하러 온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강의 참관을 실시하기 전에 한국어교육실습에서 다루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강생이 한국어교육 현장과 강의 참관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며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한국어 수업의 주체인 한국어교사(경력 차이, 교수법), 한국어학습자(언어권 및 문화권, 수준, 성향, 학습 목적)의 다양한 변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실 상황에 대한 역동성,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신이 참관한 한국어 수업이 모든 한국어 수업의 전형이라는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강의 참관을 허락받은 모든 한국어 수업에서는 크든 작든 배울

13)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단행본으로 백봉자(2013), 조형일(2013[2015]), 이윤진·이은경(2015) 등을 들 수 있다.

점이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다. 강의 참관을 하다보면 한국어 학습자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교사가 난처해한다거나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넘어선 설명을 해서 학습자가 어려워한다거나 교사가 준비한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수업 분위기가 침체되는 등 한국어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이때 참관생으로서 해당 수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업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까닭과 자신이 교육 현장에 나갔을 때 대처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 데 의의를 두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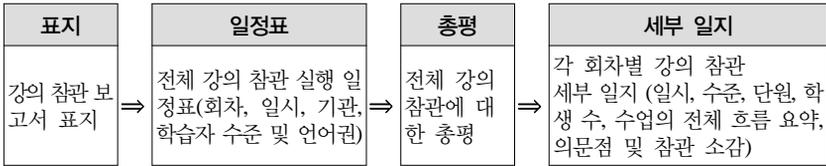
② 강의 참관 보고서 작성 방법 숙지

참관 일지 및 보고서는 수업에 대해 느낀 감상 형식의 글이 아니라 해당 수업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를 교육적 관점에서 기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 분석의 틀 및 주요 요소에 대한 사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관 보고서는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가 정해진 양식을 먼저 제공할 수도 있지만 수강생들이 함께 토론할 시간을 마련하여 한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미리 준비한 모범 강의 영상이나 유튜브에 공개된 한국어 수업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면서 좋은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특징을 찾아 보고 각자 느낀 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수업 분석의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김선정 외(2010:102-105)에서 제시한 한국어 수업 참관 보고서 모형에는 크게 ‘수업의 구성과 운영’, ‘교수·학습 내용’, ‘교사의 자질 및 특성’으로 구분하여 점점 항목에 표시를 하고 각각의 상세 보고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 참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그림 3>과 같은 체제는

회차별 참관 보고 외에 전체 강의 참관 일정 및 총평을 포함함으로써 강의 참관의 큰 흐름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 강의 참관 보고서의 체제

3) 참관 기관 조사 및 참관 규칙 인식

강의 참관 전에 수강생이 강의 참관을 진행할 한국어교육 기관을 스스로 조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강의 참관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강의 참관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참관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참관 활동을 충실히 마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참관 기관에 대한 이해

참관 기관에 대한 이해는 해당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이 스스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 기관 정보를 능동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기관의 연혁 및 설립 배경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정,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 학습자 규모 등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어 수업을 일시적으로 참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이와 같이 사전에 세심한 준비를 자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강의 참관 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수강생 스스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국어교육 분야의 진로를

탐색 중이거나 한국어교육 기관의 취업을 대비 중인 수강생에게도 참관 기관 이해도를 높이는 일은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② 강의 참관 지침의 공유 및 숙지

보다 효율적인 강의 참관 실천으로 본연의 참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강생 스스로 유의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상식적인 일들이라 미처 고려하지 못하다가 강의 참관 이후에 한국어교육 현장 측으로부터의 불만 사항이 전달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지켜야 할 강의 참관 지침을 한국어교육 기관의 담당자로부터도 전달받거나 한국어교육실습의 교수자가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사전에 정리하여 수강생과 공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자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참관자로서의 자격을 넘어서는 태도와 언행을 삼가야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사전 동의 없이 한국어 수업을 사진 촬영하거나 녹음·녹화하지 않는다.
- 참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수업 중에 출입하지 않는다.¹⁴⁾
- 수업의 흐름에 방해되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
(다른 참관자와 대화, 크게 웃기, 휴대폰, 노트북 사용 등)
- 한국어교사와 한국어학습자의 수업 중 상호작용에 끼어들지 않는다.
(대화 참여, 비언어적 반응 등)
- 수업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교사와 학습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언행 및 비언어적 태도에 유의한다.¹⁵⁾

14) E기관의 한국어 교사에게 참관생을 받은 경험을 인터뷰한 결과,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을 받기도 하고 한국어 교사의 양해 없이 수업 중에 들락거리 는 참관생을 차마 나무랄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 교사가 참관생 평가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최저점을 주고 싶었다”라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교사를 평가하는 듯한 태도, 다리 꼬고 앉기, 고개를 가우똥하기, 표정을 찌푸리기 등)

강의 참관은 현장의 교사와 교수법을 평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것이며 외국인 학생과 교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는 있는 살아 있는 수업을 보러 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2. 모의 수업

강의 참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현장을 제3자의 시선에서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것이라면 모의 수업은 예비 한국어교사가 가상의 수업을 직접 진행해 본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실습의 한층 심화된 단계라 볼 수 있다.

1) 모의 수업의 정의와 목표 이해

모의 수업은 학습자의 특성을 전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지도 교수 및 동료의 평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자신의 수업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실천적 교수 방법(조희정, 2013:2)이다. 따라서 모의 수업을 얼마나 실제와 가깝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실연해 보느냐가 곧 한국어 교수 역량 신장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마치 외국인 위한 한국어 교육의 단계에서 ‘교육적 과제(pedagogical task)’ 수행과 매우 닮아 있다.

<표 4>의 좌측은 기존의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지침 가운데 대학(원) 과정에서, 우측은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 지침(안) 공청회

15) 이를테면 참관생이 만약 고개를 가우똥하면서 미심쩍은 표정으로 참관보고서에 무언가를 기록한다면 한국어교사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화 실수를 했을 때 큰 웃음소리를 낸다면 학습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2015.12) 운영지침(안)에서 모의 수업에 관한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표 4> 모의 수업 운영 지침과 운영(안)

모의 수업 운영 지침(2015)	모의 수업 운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전공 학생 전원이 1회 이상의 기회를 갖도록 함. ▪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수업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이 한국어학습자(동료수강생 가능)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아닌 모의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교수가 실제 모의 수업 현장에 참관하여 이루어지는 것 * 담당 교수는 모의 수업 지도와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함. 수강생 전원 모의 수업을 직접 진행해야 함.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모의 수업의 정의와 목표를 이해하고 나서 한국어 수업 구성과 교안 작성 방법을 파악하게 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모의 수업을 통해 한국어 수업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어 수업 구성 이해와 교안 작성

모의 수업은 자신이 계획한 수업 내용과 방법(교안)을 얼마나 잘 구현 하는가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외적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를테면 교사의 입장에서 교실의 물리적인 상황, 기자재 활용, 학습자 변인 등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하고 실제 교수 현장에서 벌어질 법한 돌발적인 혹은 역동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간접 체험해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수업의 외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가상 또는 설정이어서 실제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수업계획 중심적이고 교수-학습지도안에 치우치지 않는’¹⁶⁾ 모의 수업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교안이 시나

리오라면 모의 수업은 그것을 무대로 올려 보는 리허설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보는 것도 모의 수업이 갖는 중요한 의의가 된다.

① 한국어 수업 구성의 이해

모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한국어 수업 구성의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수업 중 교사의 언어 및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철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논저를 추천하여 읽도록 하고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의 수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 모의수업 전반 : 김지혜(2015)
- 교사 발화 : 백승주(2013)
- 교사의 시선처리 : 이기영(2010)

논저를 읽는 과정에서 모의 수업의 이전 단계에 진행되었던 강의 참관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누리-세종학당, 유튜브 등에 공개된 한국어 수업 영상 사례를 분석하면서 실제 수업의 흐름에서 유의할 점과 교사의 발화 및 시선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② 교안 작성

모의 수업의 내용 결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특정 교재의 특정 단원을 공통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수강생이 모의 수업할 내용을 자율

16) 이와 관련하여 심미자(2012:373)에서는 이수한(2011)의 논의를 빌려오면서 “수업 연구나 수업공개일 경우, 교사는 지나치게 수업계획 중심적이며 장학 담당자들도 교수-학습지도안에 관심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업의 사전, 사후 협의 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교수방법 등 교사의 수업행동 중심으로 논의가 편중되어 왔다”라고 설명한다.

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복수의 특정 교재와 단원을 찾게 한 후 교수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수강생들의 선택이 겹치지 않도록 교수자가 조율을 해 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물론 시간 관계 상 한 단원 전체가 아니라 문법이나 어휘와 같이 특정 범주를 지정하거나 대화문, 연습, 활용과 같이 교재 구성의 일부, 수업의 흐름 중 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모의 수업 이후 단계에 강의 실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모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강의 실습을 대비하여 사전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교안 작성은 단지 모의 수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어 교재를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교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전체 단원 중 특정 단원을 택하더라도 선행 단원과 후행 단원의 수준을 고려하는 훈련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안 작성 단계에서는 가능하다면 특정 단원 전체를 작성해 보도록 하되 모의 수업은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수업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일부를 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교안 작성 전반 : 장미라(2010)
- 교안 모형 : 김선정 외(2010:102-106)

위와 같이 교안 작성 전반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논저와 교안 모형을 제시하고 교안 초고가 완성되면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 후 수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3) 과정 중심의 모의 수업

모의 수업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강의실에서 진행된다면 교수자와 동료들을 청중으로 진행한 후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 학기에 모의 수업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모의 수업에 대해 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수업 역량을 신장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는 혼합 학습을 통한 과정 중심의 모의 수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 모의 수업 연습과 준비 사항 점검

수강생들은 각자 진행할 모의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구를 제작하거나 준비하고 교수자에게 전달받은 모의 수업 지침을 숙지한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나 한국인 동료를 섭외할 수 있다면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모의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다.

② 모의 수업 동영상 개별 촬영

수강생들은 각자 준비한 교안으로 모의 수업을 개별적으로 촬영한다. 촬영 장소 및 학습자 섭외 여부는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각자 촬영한 모의 수업 동영상은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에서 개설한 공동 계정으로 유튜브에 비공개로 탑재한다.

③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교환

한국어교육실습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이 각자 탑재한 모의 수업을 함께 시청하면서 피드백을 교환한다. 이 방법은 모의 수업 당사자의 자가 점검, 동료 점검, 교수자 점검의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특정 수업 장면에 대해 집중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다시보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모의 수업과 모의 수업 점검표 작성(자가, 동료, 교수자), 자유로운 총평을 마친 후 관련 점검표는 해당 모의 수업을 진행한 사람에게 모두 전달한다. 모의 수업 점검표를 받은 수강생은 모의 수업 수정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이를 토대로 최종 모의 수업을 위한 자신의 교안을 수정한다.

④ 최종 모의 수업

최종 모의 수업은 1차 모의 수업의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수업 역량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종 모의 수업은 동료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진행된다. 물론 섭외 가능한 한국어 학습자가 있다면 청중의 대상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 모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의 수업의 단계를 하나 더 포함할 시간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모의 수업(수정) 2차 동영상도 탑재하도록 하는 것도 이상적이다.

4.3. 강의 실습

강의 실습은 한국어교육실습의 첫 단계에 진행된 강의 참관, 그 다음의 모의 수업에서 익힌 수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는 최종 단계이다. <표 5>의 좌측은 기존의 한국어교육실습 운영 지침 가운데 대학(원) 과정에서, 우측은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 지침(안) 공청회(2015.12) 운영지침(안)에서 강의 실습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표 5> 강의 실습 운영 지침과 운영(안)

강의 실습 운영 지침(2015)	강의 실습 운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함. ▪ 강의 실습이 진행된 이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실습한 기관에서 반드시 실습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실습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이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 ▪ 수강생 모두 강의 실습을 해야 하며, 강의 실습 담당 교수(또는 교육기관의 담당 교수자)는 수강생에게 지도와 평가를 하도록 함. 수강생들은 실습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 ▪ 실습교과목 운영기관은 수강생들이 실습한 기관에서 실습확인 (강의 실습 시수 등이 기재된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위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강의 실습 운영 상의 주요 쟁점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의 실습의 목적과 의의 이해

한국어교육실습의 모의 수업이 ‘교육적 과제’(pedagogical task)라 한다면 강의 실습은 ‘실과제’(real task)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상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교육을 하고 한국어교육의 이론을 실천해 보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 실습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교사, 학습자, 환경을 접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단계와 차별점이 있다. 특히 강의 실습이 모의 수업과 다른 점은 실습생 중심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와 적용 능력이 실전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이 바로 강의 실습의 의의이다.

2) 강의 실습 기관 및 학습자 섭외

강의 실습 진행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협조 하에,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와 한국어교육기관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습 가능성과 세부 사항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또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전체 실습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어교육실습의 수강생이 스스로 희망하는 한국어교육기관을 알아보도록 허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개설 기관과 담당 교수자가 공문 발송 및 조율에 대한 도움을 주는 절차와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¹⁷⁾

강의 실습이 한국어교육 기관의 정규 수업의 일부를 맡는 것이라면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규 수업 이외의 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보충 수업이나 1:1 지도가 필요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의 실습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섭외가 아니라 현재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복습하거나 더욱 상승작용이 날 수 있는 수업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강의 실습 기관 섭외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정을 맞추어야 한다.

- 강의 실습 대상의 수준과 학생 수, 학습자의 배경 및 요구
- 사용할 교재와 수업할 단위(진도, 분량 등)
- 한국어교육기관의 강의 실습 지도 교사 유무
- 실습 지도 교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
- 강의 실습 확인서 서식

17) 개별적으로 강의 실습 기간을 알아보는 경우 대략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수강생] 한국어교육경력인정 기관 중 실습 가능 기관 탐색 ⇒ [수강생] 자신의 관심 기관의 담당자에게 실습 가능 여부 문의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개설 기관의 행정 담당자 및 교수자] 수강생의 실습 희망 기관에 공문 발송 후 협조 요청 ⇒ 강의 실습 성사 및 세부 사항 조율

3) 강의 실습 진행

강의 실습 기관이 확정되면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은 해당 기관의 개요와 현황 등을 사전에 알아보고 최대한 기관과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습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실습 진행에 관련된 내용을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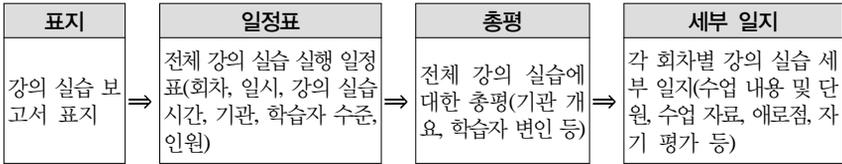
-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 : 강의 실습 기관의 개요, 현황, 학습자 변인 등을 파악, 자신이 맡을 한국어 수업에 대한 숙지, 철저한 사전 준비
-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 : 수강생의 실습 상황 수시 파악, 한국어교육 기관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 강의 실습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공지
- 한국어교육 기관의 실습 담당자 : 강의 실습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실습 지침 및 실습 시 주의 사항 등 공지, 강의 실습 인증서 발급

강의 실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국어교육실습 교수자는 지속적으로 실습 상황을 파악하고 수강생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한국어교육기관의 실습 담당자와 협의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강생들이 매회 강의 실습을 할 때마다 실습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예비 한국어교사로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강의 실습 보고서 작성

강의 실습을 통해 수강생들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어교사로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그림 4>와 같은 강의 실습 보고서는 수강생이 스스로 전체적인 강의 실습 실행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할 점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의 기록인

동시에 강의 실습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된다.



<그림 4> 강의 실습 보고서의 체제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각 단계의 의의, 주요 내용, 참여자의 역할, 운영 시 고려할 점, 평가 자료의 틀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1>의 운영에 있어서 선행·후행 단계의 긴밀성과 교육적 함의를 밝혔으며 특히 교육대학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어교육실습의 운영 원리 및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5. 결론

한국어교육실습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 신장’,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 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교원양성을 위한 타교과목과 차별화된, 실전 중심의 교과목이다. 이에 한국어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정작 한국어교육실습의 담당 교수자가 수업 설계와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것이 이 글의 시작점이었다. 본고는 오프라인(교육대학원)의 한 학기 수업을 고려하면서 한국어교육실습 주요 구성과 특징, 실제 운영 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교육실습의 <모형1>은 한 학기 15주차 수업을 고려했을 때 크게 ‘도입(교과목 이해)-제시(강의 참관)-연습(모의 수업)-활용(강의 실습)-마무리(포트폴리오 제출)’로 운영된다고 보았다.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선행·후행 단계가 자연스럽게 중첩되고 연계되며 심화되어 가는 만큼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강의 참관은 한국어 교육 현장을 직접 접하면서 관찰·분석할 수 있는 기회로서, 모의 수업은 가상의 수업을 진행해 보는 수업 리허설이자 교육적 과제(pedagogical task)로서, 강의 실습은 앞선 단계에서 익힌 수업 역량을 총동원하여 직접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실전 또는 실과제(real task)이라는 점에서 각각 차별화된 의의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안 작성과 모의 수업에 있어서 동료·교사 피드백 수렴 후 수정 및 보완 기회를 갖는 등 각 단계를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과정 중심의 원리에 따를 때 더 의미 있는 실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수업이 야간에 진행되는 교육대학원의 특성 상, 한국어교육실습을 운영할 때 크고 작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강생의 요구 및 그들이 처한 여건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실습 일정(시간), 참관 기관의 섭외, 개별 실습의 허용은 물론 참여자의 역할(교수자, 수강생, 교육 기관), 단계별 지도, 관리, 평가 방법 등에 있어서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그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가령, 평일 오전 ‘강의 참관’(<부록>18) 4~6주차)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오후나 저녁 수업의 참관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강생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별 강의 참관이 요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18) 여기에서 <부록>은 이 글에서 기술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대학원의 한 학기 수업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주차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한 표이다. 심사자께서 주신 제안 및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논의의 흐름 유지와 가독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부록>에 배치하였다.

(<부록> 2주차) 교수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교실에서 진행되는 ‘모의 수업’에서 1인당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생이 다인수이거나 다른 변수가 있다면 혼합학습 방식(<부록> 7~11주차)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됨을 제안하였다. 한국어교육실습의 최종 단계인 ‘강의 실습’(<부록> 9~11주차)은 수강생의 향후 진로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육 기관을 섭외할 수 있도록 배려하되(<부록> 6주차) 기관의 공신력, 한국어 학습자 변인, 강의 실습 확인서 발급 여부 등을 꼼꼼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알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실습은 첫 주의 교과목 소개 및 이론 수업에서부터 마지막 주의 한국어교육실습 포트폴리오 제출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의실 이외에도 다양한 물리적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업을 조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하지만 성공적인 한국어교육실습의 운영을 위해 학기 이전과 이후의 시점에도 교수자가 다각도로 고려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작업들이 결코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고에서 밝힌 한국어교육실습의 각 단계별 특성 및 과정 중심의 내용, 참여자의 역할, 주차별 참고 자료 등이 한국어교육실습이라는 교과목의 본래 취지를 더욱 잘 살리고 한국어 예비교사인 수강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별 상황에 최적화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후속 연구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경희·이선경(2004), 교육실습에서 교실수업에 대한 과학교육전공 학생들의 고려사항, <한국교원교육연구> 21-1, 한국교원교육학회, 105쪽-131쪽.
- 강숙희(2012), 모의수업 활동에 기반한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교육방법연구> 24-1, 한국교육방법학회, 209쪽-228쪽.
- 강창숙(2014),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실습에서 나타난 언어상호작용의 관찰과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1-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67쪽-83쪽.
- 고영미·하재옥(2009), 유아교육 실습지도를 위한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 간 e-멘토링에 대한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8-2,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97쪽-219쪽.
- 국립국어원(2015), <2015~2016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기준성(2015), 한국어교육실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모의 수업강의 실습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2-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쪽-22쪽
- 김선정·방성원·이동은·강현자·류수영·박정아(2010), <국의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김영민(2013), 자기 평가서를 활용한 초등 예비교사의 영어수업능력 향상 방안, <한국초등교육> 24-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7쪽-214쪽.
- 김원정(2010), 예비 체육 교사의 수업 시연을 통한 자기수업반성에 대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5쪽-52쪽.
- 김유미(2009), ‘한국어 교육실습’ 교과목의 교수요목과 교육방안연구 -한국어교육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5쪽-384쪽.
- 김재욱(2015),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지침(안) 공청회 토론문1,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14쪽-20쪽.
- 김정숙(2015),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지침(안) 공청회 발제문,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 김지혜(2015), 예비 한국어 교사의 모의수업 연구-온라인 과정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1, 이중언어학회, 45쪽-66쪽.
- 박성덕·김은정·김경철(2015), 예비유아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반성적 모의수업에 대한 실험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97쪽-228쪽.
- 박영민(2002), 교육실습 내실화의 방향 탐색: 인천교육대학교 교육실습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20,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89쪽-127쪽.
- 배성아·안정희(2014), 예비교사의 반성적 저널에서 나타난 수업시연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의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93쪽-417쪽.

- 백봉자(2013), <한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가>, 하우.
- 백승주(2013), 예비 한국어 교사의 교사 발화 분석, <이중언어학> 53, 이중언어학회, 115쪽-149쪽.
- 손은령·박수정·이주옥(2016),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체제 개선 사례 및 성과 분석, <교육연구논총> 37-1,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1쪽-25쪽.
- 송향근(2012),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53쪽-75쪽.
- 송현정(2015), 수업 컨설팅을 위한 한국어 수업 분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6, 한중인문학회, 97쪽-119쪽.
- 심미자(2012),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컨설팅의 새로운 방향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한국교원교육학회, 371쪽-396쪽.
- 왕한신·최유현·서우석·송상현(2004), 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3,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447쪽-467쪽.
- 이기영(2012), 한국어 교사의 교수 행동과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 연구-교사의 시선 처리 관찰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11쪽-233쪽.
- 이상하·조보경·진경애(2014), 영어과 수업실연 평가의 수준설정 방안, <교원교육> 30-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401쪽-421쪽.
- 이수한(2011), 수업컨설팅 활성화 방안, <부산동래교육지원청 장학자료> 제2011-30호, 232쪽-241쪽.
- 이운진·이은경(2015), <한국어교육입문-교육 현장 편>, 학지사.
- 장미라(2010), 예비 한국어 교사의 학습지도안 구성에 대한 연구-수업 단계별 교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4, 국어국문학회, 57쪽-91쪽.
- 장승희(2012), 초등 도덕과에서 “좋은 수업”의 의미와 방향: “초등도덕과교육” 강좌의 모의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38,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35쪽-265쪽.
- 조형일(2013), <한국어교실 수업의 원리와 실제>, 소통.
- 조희정(2013), ASSURE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모의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배재대 박사학위논문.
- 진정란(2011),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25-2, 83쪽-100쪽.
- _____ (2014),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사례 분석 연구: 사이버대학 교과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28-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7쪽-232쪽.
- 최은규(2011), 현장의 수요와 요구,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131쪽-157쪽.
- 한상미(2015),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운영지침(안) 공청회 토론문4-오프라인

218 이중언어학 제65호(2016)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7쪽-33쪽.

* 한국어 교육 동영상 자료

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gdang.org>)

유튜브 연세대 한국어학당 팟캐스트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R_0desr7YmnwDbpw2zNQ)

<부록>

한국어교육실습 <모형1>의 주차별 운영의 주요 내용 및 참여자 역할

주차	주요 내용	수강생의 과제 및 역할	교수자 역할	참고논저 및 자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소개 한국어교육실습 전체 일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강의의 참관 기관 확인 및 실무 담당자와 구체적인 내용 협의 (개강 전에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2016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라잡이 김유미(2009), 진정란(2014) 한국어교육 기관에 발송할 강의 참관 협조 요청 공문 서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현장 및 수업의 이해 교안 작성의 원리 및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에 강의 참관이 불가능한 수강생은 한국어교육경력기관인정기관 중 참관 기관을 미리 알아보도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봉자(2003), 조형일(2013 [2015]), 이윤진·이은경(2015) 장미라(2010), 김선정 외 (20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수업 구성 원리 및 수업 관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관찰을 위한 점검 항목 작성/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수업 영상 추천 (좋은 사례, 나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학당 우수 수업 동영상 유튜브 한국어 수업 동영상(연세대 한국어학당 팟캐스트 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참관을 위한 한국어 수업의 이해 한국어 수업 분석의 실제 : 온라인 수업 관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관찰 보고서 작성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관찰 보고서 서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강의의 참관 기관에 대한 이해 및 참관 규칙 인식 한국어 수업 분석의 실제 : 온라인 수업 관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관찰 보고서 작성② 한국어 강의의 참관 기관 확정(단체,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익미한 강의의 참관 기관을 위한 사전 정보 조사 및 공지(참관할 한국어 학습자 수준, 사용 교재, 수업 진도 등) 한국어교육기관 담당자와 강의 참관 실무 최종 협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참관 오리엔테이션 참석 강의 참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참관 보고서 작성① 모의수업을 위한 교재와 단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참관 기관 담당자와 피드백 교환 강의 실습 가능 기관 및 일정 등 세부 사항 확인 (개별 강의 실습을 진행하는 수강생의 경우 기관의 공신력과 강의 실습 증빙 가능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지혜(2015), 이기영(2010) 백승주(2013) 강의 참관 보고서 서식 한국어교육 기관에 발송할 강의 실습 협조 요청 공문 서식

7	중간고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수업을 위한 교안 초고 작성 (하나의 단원 전체 교안을 작성하되 모의수업은 그 중 일부로 함. (10~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개별 강의 실습 기관 및 일정에 대한 최종 확인(유선,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교안 사례
8	• 강의 참관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참관 보고서 작성② • 모의 수업 동영상 촬영 후 탑재 (한국어교육실습 수강생 공유 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개별 강의 실습 기관 및 일정에 대한 최종 확인(유선,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실습 보고서 서식(필수 항목 포함)
9	• 강의 참관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보고서 작성③ • 개별 강의 실습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기관 담당자와 강의 참관에 대한 최종 피드백 교환 • 개별 강의 실습 진행 상황 확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수업의 정의와 목표 이해 • 모의 수업(동영상)①에 대한 피드백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강의 실습② • 모의 수업 수정 교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강의 실습 진행 상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수업 점검표 서식 • 모의 수업 수정·보완 계획서 서식
11	• (최종) 모의 수업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강의 실습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강의 실습 진행 상황 확인 	
12	• 강의 실습 결과 보고회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기관 담당자와 강의 실습 최종 피드백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실습 확인서 서식
13	• 강의 실습 결과 보고회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준비 		
14	• 한국어교육실습 진행 및 성과에 대한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강의 실습 확인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안내 (목차 구성 및 편집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작성 서식
15	기말고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실습 포트폴리오 제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포함) 		

이윤진(Lee Yunjin)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전화번호: 031-463-1395

전자우편: smile-yunjin@hanmail.net

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12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5일